

(주소) 11775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15 (전화) 031-853-9317 (팩스) 031-853-9048

배 포 일	2024.12.18.(수)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즉시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발족과 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2	4	www.ggcf.kr/	부서 : 지역문화실 담당 : 유상호 전화 : 031-853-9317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발족과 특별자치도 토론회 개최

- ▶ 문화예술인 민간단체와 경기도 문화기관이 모여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발족
-예총, 문화원북부협의회, 민예총,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아트센터 참여
-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대개조 사업에 문화예술사업 강화 기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 민간단체와 함께 경기북부 문화공동체를 결성하고 17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발족식과 '경기북부 문화계와 함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발족식'에는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 경기북부문화원장협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등 7개 문화단체·기관 대표들과 소속 단체원 등 경기북부 문화공동체 일원으로 경기북부 문화발전에 관심있는 문화계 인사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발족식에 참여한 7개 단체·기관 대표들은 '경기북부 문화공동체'를 결성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성장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태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교수의 '경기북부 문화발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의'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태우 교수는 ▲지역문화정책과 경기북부 ▲경기북부 지역문화 현황과 문제점 ▲경기북부 문화발전과 특자도 설치의 관련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설명하고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태우 교수를 좌장으로 신영균 경기관광공사 DMZ사업실장, 박상순 경민대학교 공연예술과 교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뮤지컬 배우 박해미, 백만유튜버 짧지식 등 문화관련 민·관·학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 문화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와 함께 현장 참여 문화계 인사들의 질의 및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화공동체 발족을 함께 준비한 김유임 지역문화본부장(문화재단)은 "현재 경기북부는 산업, 교통인프라 구축과 함께 상상캠퍼스 같은 규모 있는 복합문화 기반시설 설치, 문화예술 생산기반 확대, 경기 북부만의 문화특성화 사업이 필요하며, 문화공동체가 새로운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